

재물·복 많다구요? 끼·재능 더 많아요

◇1935년생(73세)

연예인은 아니지만 스타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경상북도와 캄보디아가 공동 개최한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가해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높은 패션 수준을 선보여 호평 받았다.

올해도 국내는 물론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등지에서 패션쇼를 기획하고 있다.

◇1959년생(49세)

"59년 돼지띠는 386세대와 58년 개띠 사이에 끼인 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태어난 해로는 회자되지 못했지만 알고 보면 '끼'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원한 호랑이띠 불자가수회장 **김홍국**

앙드레김 해외공연 백백

김홍국 돼지띠 봉사단 계획

씨는 이렇게 말하며 깔깔 웃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다. 바로 앞 해인 '58년 개띠'의 어감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강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올해는 저의 해이니만큼 방송이외에도 의미있는 일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0월경 왕십리 근처 한양대에서 전국의 59년 돼지띠 불자들이 함께 봉사단을 조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는 김씨는 가수들의 친목 도모와 스포츠를 통한 대중과의 교류를 위해 (사)대한가수협회 축구단도 1월 21일 창단해 단장을 맡고 있다.

현재 TBS 교통신방에서 'Wow! 김홍국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김씨는 불자가수회장으로서 올 하반기경 해외공연도 계획해 불자들의 해외 불음포교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며, 불자가수회 법인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1971년생(37세)

요즘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가장 최정점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들이 모두 여기에 모여 있다. 새해초부터 차기작을 신중하게 고르며



김홍국 이영애 안재욱

정해년 뒀는 돼지띠 불자 연예인들

2007년 정해년(丁亥年)이다. 올해는 600년만에 한번 돌아오는 '황금돼지해'로 알려져 재물과 복을 많이 가져다줄 것이라 기대가 크다. 예로부터 '돼지는 무엇이든 잘 먹는다' 해서 돼지띠는 먹을 복이 있다고 했다. 또한 돼지는 다산의 상징으로 복중의 복인 자손 번창을 뜻한다고도 했다. 돼지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봐도 돼지는 여러가지로 우리에게 길한 동물인 듯하다. 돼지의 해를 맞아 특히 돼지띠 불자 연예인들을 출생 연도별로 살펴봤다. 이들이 2007년 더욱 큰 활약을 펼치게 될지 주목해보자.



고현정 김민중 이지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산소같은 여자' 영화배우 **이영애**씨. 이씨는 2005년 8월 충남 마곡사에서 일본 방송과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1박2일 동안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올해도 새작품에 들어가기전 어머니와 인연이 깊은 사찰을 다녀올 예정이다. "드라마 '대장금' 촬영전에도 마음을 가

다듬고 새 드라마에 집중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부산 삼광사를 다녀온 적이 있다"며 "그때부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사찰에 다녀오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평소 만자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며 불자임을 당당히 밝히는 가수 겸 배우 **김민중**씨도 돼지띠다. 김씨는 "소속사를 새롭게 옮겼으니 앞으로는 좋은 시나리오가 있

던 영화에도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아 불심이 깊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사찰이라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지난해 1여년 만에 케이블 드라마 '하이엔나'를 통해 인기를 재확인 시켰던 김씨에게 영화는 올해의 화두다.

대한불자가수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김씨는 평소 어머니가 자주 다니는 능인선원에서 수행생활을 하고, 지방 촬영이 있을 때마다 근처 사찰을 꼭 찾는다. 특히 김씨에게 불교는 2년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큰 의지처가 됐다.

얼마전 종영된 MBC드라마 '여우야 뭐하니'에서 과격적인 변신에 성공하며 연에게 화려하게 복귀한 **고현정**씨도 2007년 드라마, 영화, CF에서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한동안 광고로밖에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배우 **이미연**은 올해 초 영화 '어

이영애 안재욱 고현정 등 최정점 인기 이름값 특목

개 너머의 연인'의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SBS-TV 드라마 '사랑에 미치다'로 2월부터 인방 시청자들을 찾는다. 여기에 한류의 원조인 가수 겸 배우 **안재욱**과 걸트 삼총사로 활동하다 뮤지컬계에 뛰어들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정성현**씨 등도 동갑내기 들이다. 이들 모두 자기 자리에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있는 불자연예인들이다.

◇1983년생(25세)

두려움 게 없는 나이다. 저마다 가능성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하나같이 유행해 주목할 만한 재목들이다.

얼마전 댄스그룹 '주얼리'에서 탈퇴, 연기자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지현**씨. 이씨는 현재 MBC 인기 프로그램 '행복주식회사-만원의 행복'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다. '클릭!' 기타리스트 출신으로 '나의 자유' '아니 벌써' 등의 히트곡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수 **노민혁**씨도 활발한 활동이 주목되는 기대주다.

김주필 기자 jkim@buddhapia.com

interview

사찰음식 강좌 여는 정산 스님



“정신 훼손하지 않고 현대적 음식 개발해야”

사찰음식연구가 정산 스님. 아직은 사찰음식전문집 '산촌(山村)' 대표 '김연식'이라는 속명으로 더 알려져 있는 정산 스님이 올해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에 발 벗고 나선다. 지난 20여 년간 '산촌'을 꾸리는 물론 해외에까지 유명한 음식점으로 키웠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 첫 걸음으로 올해 3월 개강하는 동산불교대학의 사찰음식학과 강의의를 맡았다. 그동안 개인 연구소 등에서 사찰음식 강의가 열려 왔지만 교양대학 내에 정식 교과목으로 강

좌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과정 1년과 연수과정으로 이뤄지는 강좌에서는 이론체계 정립과 실습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스님은 '사찰음식 아카데미(가칭)'를 개설해 심도 깊은 강좌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찰음식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법인체를 구성해 공간을 확보하고, 커리큘럼을 체계화해 나가기 위해서다.

"우리의 전통적인 사찰음식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대중의 무관심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거나 왜곡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찰마다 전래되는 고유 음식을 찾아내고 기록해야 합니다."

정산 스님은 열다섯 살 되던 해인 1961년 법어사로 출가했다. 음식 만드는 일에 유독 흥미를 가졌던 스님은 사찰음식이란 존재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인 70년대 초반부터

사찰음식에 주목했다. 전국의 유명 사찰을 찾아다니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오던 '공양간 손맛'을 배웠고, 사찰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 일간지와 잡지 기고물을 통해 사찰음식을 알려 나가던 스님은, 80년대부터 서울 인사동에 사찰음식 전문점을 열고 이를 운영하는 데만 전력을 쏟았다.

'스님이 왜 음식에만 관심을 가지냐'는 비난과 '사찰음식 연구에 예산을 쓸 수는 없다'는 종단의 무관심

에도 더 이상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렇게 26년이 훌쩍 넘

다. 그 사이 '산촌'은 수많은 국내 언론은 물론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우수 레스토랑'으로 소개될 만큼 세계적인 음식점으로 성장했다.

스님 역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비록 승적이 바뀌고 가사 색깔도 달라졌지만, 스님은 "그것은 그저 행정서류상의 변화일 뿐 나의 사찰음식에 대한 애정만큼은 변함없다"고 말한다.

"사찰음식에 대한 사회와 종단의 관심이 높은 지금이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스님은 "사찰음식의 원형을 되찾고 보존하는 한편 사찰음식에 담긴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춰 다양한 음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산 스님은 본지에 격주로 사찰음식에 관한 원고 '사찰음식의 모든 것'을 연재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 위한 햇빛과 물과 대지의 자양분과도 같은 말과 글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깜빡깜빡 "내 안의 빛"을 잊고 사는 이들에게 경종이 되어줄 만한 에화 중심의 수필에서부터, 현대물리학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우주의 실재와 자연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이 책의 구성구석에 배치된 "달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들"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 누리는 자유의 삶을 촉구한다.

우주의 첫번째 부처님이신 비파시 부처님에서부터 서른세 번째 조사 스님이신 혜능 대사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를 구성하는 본원의 위대한 힘과 계합하여 자유인이 된 이들이 부른 "깨달음의 노래"는, 구도의 길에 나선 우리 모두를 크게 일깨우는 "살아 있는 할이오 방"이 되어 줄 것이다.

홍교스님 지음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A5/양장본/374쪽/값15,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빛깔 저 소리에 곱달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입맛에만 맞추려 한다면 그대 자신의 삶은 어느 세월에 구가할 것인가
이제는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되라.

- 홍교스님 -



홍교(興教)스님

법어사 하동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신 이후, 상원사, 법어사, 칠불사, 만덕사, 벽송사 등에서 14년간을 성만하셨으며 법어사, 대각사, 성주사 주지를 역임하셨다. 조계종 계 5,6,8,9대 중앙종회의원에 피선되었으며 현재는 선찰대본사 법어사 전계대화상,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법어사 이사장,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이시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시고, 조계종 종정상광 총무원장상을 수상하셨다.